

## 광주 문화수도 '위기'

문광부, 2년 문화전당 규모 축소·완공 지연  
국고 지원 최소화 ... 사업추진 부실화 우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 <관련기사 3면> 문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은 18일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규모 축소와 2010년 시한인 공기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당 건립과 운영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만, 도시 조성 등 지역성 사업은 지방비 부담 원칙 아래 광주시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광부의 입장은 지난달 열린 우리당과 문광부간 당정협약에서 문화전당을 2010년까지 완공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참여정부 임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국비 예산등을 문제삼아 점차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축소해 나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주요 현안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경제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전당의 건축 규모를 기존 4만3천172평에서 4만256평으로 3천평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전편 완공 예정이었던 문화전당을 기본설계 완료 후인 2007년 2월 이후 공사 기한을 조정, 2010년부터 단계적 완공하거나 준공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진기획단이 제시한 도시 조성 등 지역성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방점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광주시의 형편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우려가 짙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해 '국고 의존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투자방식 도입 및 전당 내 수익시설 운영 등도 추진기로 했다. 사업 규모와 추진 역량(예산 및 인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원 조정 등의 검토를 통해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진기획단의 입장은 사실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서 국고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의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여론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 의원은 "지난달 당정협약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은 오는 2010년까지 완공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당정협약을 열어서라도 문광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태풍 '산신'이 당초 우려와 달리 광주·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수확기 벼가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소규모 피해는 속출했다. 18일 오전 여수시 주삼동 최병규씨 가족이 태풍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수입쌀 어느새 국내 식탁 잠식

中·美産 모두 팔려...내년초 3만4천t 추가 반입

시판 초기 '찬밥' 취급을 받던 쌀밥용 수입쌀이 소리소문없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칼로스쌀이 모두 팔렸으며, 태국산도 소량만 남겨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6년도분 수입쌀 3만4천여t이 내년 1~5월 다시 반입될 예정이어서 '이러다가 수입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쌀 판매급증=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에 쌀쌀용으로 반입된 2005년도분 의무수입물량(MMA) 2만 1천564t 가운데 90%가 넘는 1만 9천643t이 판매됐다.

중국은 '칠하원'은 7월 들어 공매매마다 1천t씩 낙찰되더니 지난달 전체 1만 2천767t이 가장 먼저 처분됐다. 미국산 칼로스쌀도 중국산에 이어 전체 수입물량 5천504t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수입쌀은 태국산으로 전체 3천293t 가운데 42%선인 1천372만 팔렸고, 1천921t이 남아 있다. 잔여량도 매주 목·목요일 공매찰차를 통해 10일 중에는 모두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급식업체에서 인기='자나' 4월 5일 첫 공매 이후 반쯤사태까지 빚으며 외면받던 수입쌀이 판매 상승가를

가 전남지역에서도 적발되는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도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쌀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암의 한 도정공장이 중국산 쌀 105t을 구입한 뒤 국산과 중국산을 7대3 비율로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부정유통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산쌀을 지켜라=전남도·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모든 임직원이 나서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 전개, 판매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할 것에 대비,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정유통감시단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社告

#### 제1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2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여일 전남대교수 '늘푸른 여성을 위하여'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제 11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 건강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22일 '늘 푸른 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 주 제 : 늘 푸른 여성을 위하여
- 강 사 : 이여일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남대 대학원 박사  
-日 동경대 美 일리노이대 연수  
-호남 최초 시험관 아기 임신·출산 성공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 대한폐경학회 상임이사, 대한불임학회 수석부회장, 대한비뇨인과학회, 영호남산부인과학회 회장

- 일 시 : 9월 22일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8091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 한국 자살률 OECD國 최고

(10만명당 26명)

#### 광주·전남 5년새 62%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26명대를 돌파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비율이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24만5천500명 가운데 1만2천4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살률이 26.1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연령 표준화 통계(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통계)로는 24.7명으로 자살률이 높은 헝가리(22.6

명)나 일본(20.3명·이상 2003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 7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난 2001년 458명보다 5년새 62%(286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전체 사망자 2만 2천91명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자살자 수가 268명으로 집계돼 2001년 138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남도의 경우도 지난해 자살자가 476명에 달해 2001년 이후 5년간 49%(156명)가 늘었다.

통계청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치관 변화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아름다운 섬과 깨끗한 바다가 있는 **전장의 섬, 완도!**

**을 추석선물은 완도군수가 보증한 수산물**을 완도군이소에서 만나보세요!!

**[완도군 이숍] www.wandoguneshop.com**

지역특산물:

- 전복(과, 대, 중, 소) · 김 · 미역 · 다시마 · 편지
- 문어 · 새우 · 다시마말 · 가문살신

▶ 주문·배송: 6시 이후까지  
친절히 응시하겠습니다